

제 12 장

성경과 현대 과학

디모데야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의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이것을 좇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딤후 6:20-21).

“거짓되이”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프슈도(ψεύδο)입니다. 그것은 헬라어 철자법에서 쓰이는 그대로 영어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뉘모스(νυμός)는 “이름” 혹은 “부르는 것”등을 뜻하는 헬라어입니다. 따라서 프슈도 뉘모스는 “거짓되이 이름붙은” 혹은 “거짓되이 일컫는”으로 번역됩니다. 지식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그노시스(γνώσις)입니다. “그노시스교도”(gnostic, 영지주의자들)는 따라서 무엇인가를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본문에서 바울이 사용한 구절은 프슈도뉘무 그노세오스(ψευδωνύμου γνώσεως)인데, “거짓되이 이름붙은” 또는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이라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성경을 읽는 사람은 결국에 가서는 성경이 과학적인 잘못투성이라는 선언에 부딪치게 된다는 것은 예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읽은 것 중에 가장 특이한 논평은 메리랜드의 볼티모아시에 있는 존 홉킨스 대학 실험 물리학자인 새뮤얼 엘더 박사(Samuel Elder)가 쓴 것입니다. 다음의 인용문은 그가 쓴 글에서 발췌

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성경에 대해서나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관해서 “지성적인 문제거리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경우는 여러분이 학문을 너무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 너무 적게 알기 때문입니다.

참된 과학 혹은 참된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 사이에 갈등이 있다고 단언하는 사람은 아주 어려운 과제를 맡은 셈입니다. 반면에, 모든 참된 과학적 발견들은 성경이 지지해 주고, 하나님의 계시는 과학이 지지해 준다고 말하는 사람은 쉬운 과제를 맡은 셈입니다. 그것은 진리를 방어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진리를 기억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단지 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그것이 진리라면, 그것은 쉽게 제시되고 쉽게 방어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참된 과학을 확증해 주고, 참된 과학은 성경을 확증해 준다는 진리는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 명제는 어려운 것입니다. 뉴욕시의 「헤럴드 트리뷴」(Herald-Tribune)에 다음과 같은 광고가 실렸습니다.

헤리 림머 (Harry Rimmer) 목사님이 이번 주간 밤과 주일 낮 중앙침례교회에서 설교를 하십니다. 중앙침례교회는 암스테르담로 92가에 있으며, 설교 제목은 “과학과 성경의 조화”입니다. 이 목사님은 성경 안에 과학적인 잘못이 발견되면 천 달러를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뉴욕에서 윌리엄 플로이드 (William Floyed) 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읽고서, 성경에는 수 많은 과학적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그 사실을 그 설교자나 침례교회 회중들에게 만족스럽게 증명할 수 없었고, 따라서 복음전도자인 헤리 림머씨와 중앙침례교회를 상대로 뉴욕 지방 법원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은 1940년 2월 15일에 뉴욕시에서 개정되었습니다. 원고인 윌

리암 로이드씨는 자기의 소송을 뒷받침하기 위한 네 명의 중요한 증인들을 소환하였습니다.

(1) 초자유주의 히브리 회당의 바루흐 브라운슈타인 (Baruch Braunstein) 랍비

(2) 제일 공동 교회의 존 헤인즈 홀름즈 (John Haynes Holmes) 목사

(3) 제일 휴머니스트 교회의 찰스 프란시스 포터 (Charles Francis Potter) 목사

(4) 무신론 촉진 미국 연합회 부회장 울세이 텔러 (Woolsey Teller)

이들 모두가 뉴욕시 출신이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등장한 사람은 원고인 윌리엄 플로이드씨 였습니다. 그의 진술의 대부분은 민수기 11:31~32에 언급되어 있는 수많은 메추라기에 대해서 성경은 허황된 진술을 한다는 주장을 자세히 설명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그 본문입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로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 결 이편 저편 곧 진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두 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십 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 사면에 퍼두었더라.

플로이드는 이것은 3,136평방 마일(약 8,100km²)정도의 지면에 약 4피트(약 1.2m) 높이로 메추라기가 쌓인 것을 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이 부분에 대한 진술인 짧은 항목 번호 “f”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러한 메추라기 떼를 입방체로 보면 메추라기가 약 305,258,

552,448(3천억) 입방 피트(약 9백만 m^3) 정도이며, 메추라기 한 마리당 그 때 속에 눌러서 3인치(약 7~8cm) 곱하기 3인치 정도의 면적을 차지하고, 따라서 공간적으로 약 26입방인치($3 \times 3 \times 3 = 27$, 약 $400 cm^3$)를 점유할 것이다. 그러므로 메추라기 때 속에 있는 전체 메추라기의 숫자는 근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이들이 보기에는 19,538,467,356,672(십구조 오천 삼백 팔십사 억...)마리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영어로 쓰인 것이 아니고 히브리어로 쓰였습니다. 히브리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메추라기들이 홍해를 건너서 애굽으로부터 날려 와서 광야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진 중에 지면에서 약 두 규빗 높이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메추라기 때의 이동이 있었는데 지상에서 약 두 규빗 정도 높이에서 방향을 잃고 방황하며 날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들을 자기들 손으로 쉽게 잡을 수 있었고, 지팡이로 쉽게 때려 잡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플로이드씨가 주장하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즉, 그 새들이 잡혀서, 털을 뽑히고, 조리되어, 정어리처럼 통조림 깡통에 포장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다만, 그들은 낮게 날아다녀서 사람들이 그것들을 쉽게 잡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번 째 증인은 랍비 브라운슈타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실상 과학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는 점을 시인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히브리 학자들 중에서 자유주의 계열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는 성경 자체가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동물의 숫자에 대해서 모순된다고 주장하면서 한 곳에서는 각 종류대로 한 쌍씩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곳에서는 각 종류대로 일곱 쌍씩으로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피고측 변호사인, 덕망있는 제임스 베네트(James E. Bennett)는 그 랍비에게 반대 심문을 하였습니다. 브라운 슈타인씨는 창세기 7:1~2을 읽어달라는 요청을 받은 후에 자신의 증언을 수정했습니다.

창세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 수 일곱씩, 부정한 것은 암 수 둘씩을 네게로 취하며” 그러자 이 랍비는 성경이 옳았음을 자기는 긍정한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피고측 증인으로 판명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 증인은 유명한 존 헤인즈 홀름즈로서 제일 공동 교회의 담임 목사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떤 과학분야의 전문가로서 말할 자격은 없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도 역시 창조에 관한 성경의 설명에 대한 자기의 생각은 단지 자기의 사견일 뿐이며 자기가 다른 누구에게 말할 자격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판사들에 의해서 법률적인 증거가 되지 못하게 되었고, 따라서 그는 퇴정 당했습니다.

그 다음 증인은 제일 휴머니스트 교회의 담임 목사인 찰스 프란시스 포터 목사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여러 과학분야에 대해서 증인으로서 알아야 한다고 판사들이 생각하는 정도의 전문가로서의 자격은 없다는 점을 시인했고, 따라서 어떤 권위를 갖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계속 진행하였고 심문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주장을 진술했습니다. 즉, 창세기에 기록된 것과 같은 홍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때 재판관이 그에게 그 곳에 있었는지, 없었다면 어디서 그 사실을 알아냈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 목사는 자기가 독서와 연구를 통해서 그 사실을 알았다고 말했지만 결국 자기의 의견은 순전히 사견임을 인정했습니다.

그 후에 덕망있는 제임스 베네트씨가 피고측 변호사로서 그에게 반대 심문을 하였습니다. 제일 휴머니스트 교회의 목사는 자신은 하나님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며, 그 이유는 자기가 그 주제에 대하여 무지하며 아는 바가 없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단 순히 관념일 뿐이라고 생각한다고 고백하고 기도한 적은 결코 없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 다음날인 1940년 2월 16일, 금요일에는 윌세이 테일러씨, 무신론 촉진 미국 연합회 부회장이 증인이었습니다. 그는 아주 적극적인

이고도 자신만만하게 켈수스(Celsus)로부터 볼테르를 거쳐 잉거솔(Ingersoll)에 이르는 무신론자들의 긴 계보에 의해 익숙해지게 된, 성경에 대한 모욕과 무신론적인 비방을 반복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인정받은 과학자라고 주장했지만, 어떤 대학을 졸업한 것은 아님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독서와 신문, 잡지 등 아마도 무신론자들에게 의해서 출판되는 모든 간행물들이 주종을 이루는 서적들을 읽는 것을 통해서 독학했다는 것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즉 변호사인 덕망있는 제임스 베네트씨가 그 무신론자를 반대 심문하였습니다. 베네트씨는 그로 하여금 자기가 다윈의 글을 잘못 읽었으며 다윈을 오해했음을 시인하게 하였습니다.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다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종의 기원』에 대해서 자기가 말한 내용을 확신하지는 않았읍니다.) 베네트씨는 그에게 자신이 히브리어도 헬라이어도 라틴어도 아무 것도 모른다는 점을 인정하게 만들었습니다. 베네트씨는 또한 그로하여금 자기가 인용한 과학자들이 심각한 오점들을 남겼고 과학적인 오류들을 범했다는 사실도 인정하게 만들었습니다. 법정에서 그들은 그 점을 예로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그 소송 사건을 읽으면서 그들이 법정에서 지적해 낸 오류 중의 하나를 제 자신의 작은 책 『인간은 우연한 존재일 뿐인가?』에서 발견했을 때 얼마나 긍지를 느꼈는지 상상도 못하실 것입니다. “인류학의 속임수”라는 제목이 붙은 장입니다.

인용된 과학자는 미국의 저명한 고생물학자인 헨리 페어필드 오스본(Henry Fairfield Osborn) 박사였습니다. “오래된” 또는 “고대의”에 해당하는 헬라이어는 팔리오스(παλιος) 이고 온토스(ὄντως)는 “존재,” 그리고 로고스(λόγος)는 “연구”를 뜻합니다. 따라서 고대 생물들에 대한 연구에 정통한 사람이 고생물학자인 것입니다. 오스본 박사는 뉴욕 시에 있는, 미국 자연사 박물관의 관장이었고 동시에 콜롬비아 대학의 동물학 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이 분은, 네브라스카 주의 해롤드 쿡(Harold Cook) 씨에 의해 발견된 치아가 백만 년 전에 미대륙에 살았던 사람의 것이라고 다른 인류학자들과 함께

증명했었습니다. 그들은 이 유인원, 즉 반은 원숭이고 반은 사람이
이 유인원을 “헤스페로 피테쿠스” - “해롤드 쿠키이”라고 해롤드 쿡
씨를 기념해서 이름 붙였습니다. “저녁”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헤스
페로스(Ἑσπερος)인데, “서양적인”(western) 어떤 것을 가리키게 되
었습니다. 피테코스(πίθηκος)는 “원숭이”를 나타내는 헬라어입니
다. 그러므로 이 생물은, 그 위대한 고생물학자에 의하면, 백만년
전에 이 대륙에 살았던 서양의 원인이 인간인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
네브라스카 유인원에 대해 방대한 저술을 펴냈습니다-모습, 특징
묘사, 거주지, 습관, 남성, 여성 등 저는 이것이 박물관에 전시된
것을 젊은 청년 때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실물 크기의 유인원
과 이 땅에 백만 년 전에 거주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모든 종족을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그 이빨 하나에 근거한 것이었
습니다! 우리들이 읽고 있는 전체 진화설이라는 것은 턱뼈 하나,
아니면 이빨 한 개, 또는 작은 두개골 조각 하나에 근거한 것들입니
다.

테네시 주, 데이튼 시에서 있는 스코프스(Scopes) 진화론 재판에
서,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William Jennings Bryan)은 바로 이 증
거, 이 “헤스페로 피테쿠스”, “해롤드 쿠키이”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위대한 과학자인 오스본 박사는 북아메리카에 살았던 이 백만 년 된
유인원의 고대성을 증명하기 위해 인용된 권위있는 인물들 중의 하
나였습니다. 브라이언은 다만 자기 생각으로는 그렇게 멀리 소급되
는 결론을 내리기에는 증거가 너무 빈약한 것 같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브라이언은 더 시간을 갖고 더 많은 자료를 제
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브라이언을 면전에서 비웃었
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고생물학자인 오스본 박사가 다른 사
람들과 함께 이 네브라스카 사람인 “헤스페로 피테쿠스”의 연대를
백만 년 이전으로 추정한 것이 아닌가?

스코프스 재판 이후에, 그 이빨이 달린 동물의 전체 골격이 발견
되었습니다. 그 이빨은 지금은 미국에서 멸종되었지만, 한 때는 대

륙 전역에 걸쳐서 상당히 발견되었던 돼지의 일종인 페가리(멧돼지)의 것이었습니다.

그 지적을 받고는 재판부는 그 사건을 각하해서 패소시켰습니다. 제가 반복하겠습니다. 언제고 여러분은 성경에서 과학적인 오류를 증명하려고 시도하면, 어려운 경우를 겪게 될 것입니다. 언제고 누구든지 참된 과학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참된 과학을 확증한다고 주장하거나 단언하는 사람은 편히 지낼 것입니다. 하늘 그 높은 곳에서와 이 땅에서 성경책을 기록한 그 손은 우리들 손에 우리가 들고 있는 그 책을 기록한 전지하신 손과 같은 손입니다.

이제 우리는 학문적인 발견과 관찰에서 발견되는 이러한 다른 것들과 성경에 쓰인 것들 중에 몇 가지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고고학

우리 시대의 위대한 기적은 고고학자들에 의해 조사된 모든 발굴을 위한 진흙 삼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고고학자들은 동산들과 언덕들, 그리고 바벨로니아에서 바로 이집트까지 내려가는 비옥한 반달지대 전역의 고대 지역들을 여러 세기 동안 계속 발굴해 왔습니다. 모든 고대 유물들, 모든 비명들, 모든 설형문자들, 모든 상형문자 단편들—그 모든 것들이 예외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많은 이들이 모세의 “글”이라는 성경의 언급을 정확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시대에는 필기라는 것이 발명되지 않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고학자들이 비밀에 싸여있던 이집트 사막에서 텔엘-아마르나 서판(Tel El-Amarna Tablets)을 발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북서 시리아에 그들은 라스 샤므라(Ras Shamra)에 있는 우가리트 문서를 발굴하였습니다. 최근에 그들은 엘바(Elba)에서 방대한 설형 문자 서판이 있는 도서관을 발

견했습니다. 이제는 우리들은 사람들이 모세 이전 수천 년 전에도 글을 썼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는 비평가들이 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헷 족속(Hittites)이 언급되지만, 헷족이라고 불리는 민족이나 종족, 혹은 가족도 산적이 없다고 까지 말했던 때도 있었음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누군가의 상상으로만 추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고고학자들이 발굴하기 시작해서, 그들은 넓은 헷족의 제국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집트 제국이 있기 전에 거대한 헷족의 제국이 있었고, 그 후에 이집트, 그 후에 바벨로니아, 그 후에 앗시리아, 그 후에 신바벨로니아, 그 후에 페르시아, 그 후에 알렉산드리아, 그 후에 로마 제국이 있었습니다. 최초의 대제국이 헷족이었던 것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또한 비평가들은, 다니엘에 의하면 바벨로니아의 마지막 임금인 벨사살(Belshazzar)이라고 불리운 임금에 대해서 콧방귀를 뀌면서 비웃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은 분명한 역사적 오류라고 하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이러스(Cyrus : 기원전 6C경의 페르시아 왕)의 원통형 질그릇을 발굴물 더미에서 파내서 그 사실을 증명하였습니다. 사이러스는 바벨로니아의 모든 왕들을 열거해 놓았는데, 그 마지막 왕이 나보니두스(Nabonidus)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역사의 아버지라고 하는, 헬라의 역사가 헤로도투스가 바로 사이러스가 바벨로니아를 점령한 지 70년 후에 바벨로니아를 방문했을 때, 벨사살이라는 이름이 인류 역사에서 삭제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고고학자들은 바벨로니아의 언덕들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실형문자와 쉐기형 문자로 쓰여진 모든 서판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들이 발견해 낸 것을 가지고 저는 벨사살 왕에 관한 전기를 여러분에게 적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인 나보니두스는 궁정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아들 벨사살을 왕국 통치를 위해 남겨두고, 자기는 아라비아 사막에 있는 오아시스에서 살았습니다. 성경이 다시 한번 입증된 것입니다!

본문에서 꼭 한가지만 더 봅시다. 제가 학교에 다닐 때 모든 학자

들은 요한이 제4복음서를 쓸 수 있었다는 생각을 비롯었습니다. 그것은 1세기에 쓰여진 것치고는 신학적으로 너무 발전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적어도 주후 250년 경까지는 쓰여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불신앙의 학자들과 거짓 신학자들이 그와 같은 이야기를 입에 올리는 동안에, 이집트 지역의 신비한 구역에서 A. D. 95년 경에 쓰여진 파피루스가 발굴되었는데, 그것은 요한복음 18장을 인용하고 있었습니다. 고고학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해 주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땅을 파서 그 진흙을 뒤집어 놓으면, 그 때 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책 속에서 말씀하신 것을 확인해 줄 것입니다.

천지 창조론

사도행전 7장에서 우리들은 모세가 이집트의 모든 학문과 기술을 다 배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고고학적인 삽질을 통해 우리에게 모세가 공부했던 교과서가 발견되었고, 우리들은 그 당시의 학문을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천지창조론은 세상의 기원에 대한 학문, 즉, 우주의 창조에 대한 학문입니다. 고대 이집트의 과학적인 천지창조론에 따르면, 그 모든 것은 주변으로 주변으로 자꾸 팽창하는 커다란 알에서 시작됩니다. 핵분열의 전과정이 완성되면 그 알은 터져버리고 세계가 탄생됩니다! 이것이 모세 시대의 창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집어들고 인류 문학 속에서 어떤 책의 서두에 나오는 열 단어(한국어로는 일곱단어. 역주)를 읽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책이 성경입니다!

제임스 진(James Jean) 경은 『천지창조의 새로운 이해』(*The Wider Aspects of Cosmogony*)라는 제목이 붙은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 책 속에서 그는 우주는 하나의 거대한 시계의 태엽이 감겼다가 서서히 풀리는 것과 같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에너지의 방출은 복잡

한 단위를 보다 단순한 단위들로 분해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에너지는 보다 복잡한 분자들이 보다 단순한 복합체로 분해되면서 방출되는데, 마치 우리가 가솔린이나 우라늄, 또는 라듐 등의 분해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과학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생각이 시편 10:25~26에서 발견됩니다. 이 구절은 히브리서 1:10~12에도 인용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두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여상하시고 주의 년대는 무궁하리이다.

이것이 가장 오래된 과학 서적-성경-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인류학

인류학에서, 우리가 인간의 기원에 대해 배우는 모든 것은 사실상 성경에 쓰인 것과 꼭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종들을 만드셨고 그것들은 교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가시덤불이 오렌지 나무로 변하는 것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말이 소로 변하거나 고양이가 개로 변하는 것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모든 종은 독특한 것이며 각 종들이 서로 간에 다른 것으로 변형된 적이 있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따라 각자의 종류대로 모두 남아 있습니다. 그것들 가운데 하나가 인류학적인 것입니다.

종종 저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교회당 안에서 아름다운 결혼식들을 주례합니다. 모든 결혼식마다 저는 같은 일을 반복해서 집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남자를 만드시고 그를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 때 하나님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별이 빛나는 창공을 만드셨을 때는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푸릇푸릇하고 아름다운 지구를 만드셨을 때에도 “아주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을 보셨을 때에는, 비록 에덴 동산 속에 살고 있었지만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를 위해서 여자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마지막, 가장 절정에 이른 창조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여자를 그에게로 데려 오시자 그 남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이제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로다.” 왜냐하면 그 여자는 그의 옆구리에서 즉 그의 심장 근처에서 취하여 졌기 때문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남자가 자기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육체가 될지니라.” 그때 그것이 생명이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생명입니다. 모든 참된 학문이 확증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름답지요! 하나님은 그것을 그런 식으로 행하셨습니다.

천문학

제가 성경을 읽는 것에 눈을 돌려서 최근의 과학의 발견과 그것을 비교해 보고는 압도당하고 말았습니다. 욥기 26:7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욥기는 그리스도 이전 수백 년 전에 쓰여졌습니다. 태초 이래로 수천 년 동안, 모든 인류는 지구가 어떤 튼튼한 받침 위에 떠받쳐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지구가 네 귀퉁이와 가운데 하나 씩 기둥 위에 받쳐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헬라의 신화를 배웠는데, 신화의 생각 중에 하나는 세상이 아틀라스라고 불리는 거대한 거인의 등 위에 받쳐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헬라의 전통이었습니다. 힌두인들은 지구는 커다란 코끼리의 등 위에 받쳐져 있고, 그 코끼리는 무지무지 큰 거북이 등 위에 받쳐져 있으며, 그

거북이는 우주의 바다를 헤엄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수천 년 동안 이야기 되어 온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땅을 공간에 다셨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바로 하나님께서 지구를 저 우주 공간 속에 매다실 때 무엇을 하셨는지 배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수 세기 전에 지구는 평평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40:22은 땅 위 궁창에 앉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구가 둥글다는 증거입니다. 사람들은 최근까지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수 천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둥글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사야 11:12은 지구의 네 귀퉁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성경은 지구가 평평하고 네모라고 가르쳤다고 말했습니다. 이사야는 영어로 쓴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쓴 것입니다. 땅의 네 귀퉁이라는 것은 영어의 관용구입니다. 가령, 저는 해병대 모병 광고를 보았는데, 거기서 “미 해병대는 땅의 네귀퉁이에서(지구 구석 구석 어디서나) 봉사하고 있습니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자, 그 관용구가 무슨 뜻인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전 세계에서라는 뜻입니다. 또한 히브리어 카남 (קַנָּן)은 지구의 끝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그것을 즉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문을 보기만 하면 됩니다.

물리학

우리가 물리학을 배운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이미 성경 속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한 훌륭한 젊은 이태리 학자 에반젤리스타 토리첼리 (Evangelista Torricelli)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십 대에 죽었습니다. 그는 플로렌스로 갈릴레오를 방문하러 갔었습니다. 갈릴레오는 그 젊은이에게 깊은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죽을 때까지 그를 자기의 서기로 채용하였습니다. 1643년 이 토리첼리란 청년은 기압계를

발견했고 공기에는 무게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토리첼리가 그것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런 일을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즉, 여러분이 성경을 읽지 않았다면 상상도 못했을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나 욥기 28:25은 하나님께서 바람의 무게를 정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애에서 가장 잘 진술된 원자 이론을 읽기를 원하며, 특히 그것을 헬라어로 읽으시려면, 히브리서 11:3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이지 않는 것들로 지으셨습니다. 보이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들로 지으신 것입니다.

세포학

바울은 세포학자였습니다. 그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5:39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가 이러한 생물체의 세포 조직은 다 똑같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초감도 현미경으로 연구하기 시작했고 모든 종들의 세포는 다른 수의 염색체를 가지고 유한 독립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울은 아주 탁월한 세포학자였을 것입니다. 원형질과 세포벽, 세포핵, 그 모든 것들이 그가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다른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모든 것을 말씀드리려고 시간을 들였겠습니까? 우리들은 성경을 화학책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들은 성경을 천문학책으로 보지도 않습니다. 우리들은 성경을 인류학이나 천지창조론이나 물리학에 관한 책으로 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을 이야기 하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사람들의 글을 읽을 때, 성경은 괴상한 모순들과 과학적인 오류들과 역사적인 시대착오 투성이라고 말하는 글들을 읽을 때 제 영혼이 전율했기 때

문입니다. 저는 제 일생과 하늘에 대한 저의 소망을 성경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성경이 바보 천치들에 의해서, 무식한 사람들에 의해서, 머리속 공상과 불가능한 것들에 의해서 쓰여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를 괴롭힙니다. 그것은 제 영을 슬프게 만듭니다! 이것은 저는 단지 읽고 또 읽고 연구한 것 뿐입니다. 제가 읽으면 읽을 수록,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저는 성경 책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 있다는 확신에 자신있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높은 하늘에서 쓰신 그 손이 성경을 쓰신 그 손과 같은 것입니다. 저는 저의 일생을 거기에 의지할 수 있고 제 영혼을 성경의 계시라고 하는 진리에 맡길 수 있습니다!

수십년 전에 저는 작은 교회를 하나 담임했었습니다. 뒤편 숲에서 좀 떨어진 곳에는 약 17살 정도된 귀여운 그리스도인인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불행한 병에 걸렸습니다. 그 시절에 저는 거의 모두다 폐렴으로 악화되어 죽은 사람들을 장례치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때는 페니실린이 없던 때였으니까요. 그 죽어가는 소녀가 저를 부르러 보냈고, 저는 가서 그 소녀를 보았습니다. 그 소녀는 제가 그 집에 도착했을 때 혼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소녀의 식구들이 그녀를 일으켜서 젊은 목사님이 도착하셨다고 말해줄 수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제게 물었습니다. “제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주시겠어요?” 저는 그 소녀에게 시편 23편을 읽어 주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자 그 소녀가 말했습니다. “제게 노래를 한 곡 불러주시겠어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불렀습니다. 제가 부른 노래는 「안녕 친구여, 안녕 형제여」 라는 찬송가였습니다. 그러자 그 소녀가 말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저는 그 소녀의 침대 곁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아멘” 하고 말할 때 그 소녀는 다시 깊은 혼수 상태에 빠져 죽었습니다. 이 사실은 성경책이 도대체 어떤 책인가를 보여 줍니다. 우리에게 하늘 문

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저는 제가 제 영혼과 제 일생을 부탁한 그 분에게서 이 학문 세계가 저를 떼어 놓으려는 이러한 일들을 두려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창조가 진실이듯이 성경책도 진실입니다. 그 약속과 그 축복의 소망 속에서, 우리들은 우리의 영혼을 맡길 수 있고, 우리의 삶을 살 수 있으며,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우리의 자녀를 기르며, 우리에게 충만하게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행동을 보시고 축복하시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